

KIA 부진에…챔필 인근 식당 경기 없는 날 매출 더 높았다

'KBO 야구장 상권 트렌드' 보고서 …올 시즌 KIA 특수 실종 흠행기 때 외식업장 매출 3.7% ↓ …전국 유일 관중 수도 감소

KIA타이거즈 성적이 바닥을 찍은 올해 광주 잠언스필드 인근 식당 매출이 흠행기 없을 때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구 특수는 커녕 흠행기가 있는 날의 매출이 없는 날보다 7.13%나 높았다.

22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발표한 '데이터로 읽는 2025 한국프로야구(KBO) 시즌 야구장 상권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프로야구(KBO)는 시즌 관중 수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광주 챔피언스필드만 유일하게 일평균 관중 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국 야구 경기장의 일평균 관중 수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간신히했다.

지역별로 대전 야구장이 일평균 1만 6875명의 관중이 방문해 전년(1만 1525명) 대비 46.4%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커졌다. 이어 대구(2만 3606명·26%), 사직(2만 793명·14.9%), 수원(1만 3466명·12.8%), 고척(1만 2312명·11.2%) 등 순으로 조사됐다. 잠실, 문학, 창원 야구장에서도 관중 수 증가세는 뚜렷했다.

반면 광주는 일평균 1만 5258명의 관중 수를 기록해 전년(1만 7359명) 대비 -12.1%나 감소했다.

광주만의 '나홀로 관중수 급감' 현상은 2024년 시즌 KIA타이거즈가 정규리그 1위에 이어 한 국시리즈 12번째 우승까지 차지하며 지역민이 직접 야구장을 방문하는 사례가 급증했지만, 올해는 최하위권인 8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며 응원 열기와 시들해졌기 때문이다.

KIA타이거즈의 저조한 성적은 야구장 인근 상권에도 직격탄이 됐다.

특히 올해 광주 챔피언스필드 경기장 인근 외식 업장들의 매출이 흠행기가 있는 날보다 없는 날에

더 높은 예상 밖 현상까지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7개 야구 구단 인근 외식업장들의 일평균 매출을 비교 분석한 결과, 흠행기가 있는 날의 매출이 없는 날보다 7.13%나 높았다.

지역별로 사직구장 인근 외식업장 매출이 19.0% 올라 흠행기 어드벤처지가 가장 커졌고, 창원(11.4%), 대전(6.9%), 고척(5.1%), 문학(4.2%), 수원(3.4%)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만 유독 흠행기가 없는 날의 매출이 0.01% 높았다.

전년과 비교해도 올해 광주 챔피언스필드 인근 외식업장의 경우 흠행기가 있는 날 일평균 매출이 3.7%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커졌다. 창원(10.1%), 사직(2.5%), 수원(2.4%), 고척(1.2%), 대전(0.9%) 등은 흠행기가 열리는 날 인근 외식업장 매출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한편 올 프로야구 시즌 동안 광주는 북구 용봉동 서쪽 방면의 외식업장에 매출이 집중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패스트푸드(12.1%), 카페(11.4%), 한식(7.2%) 등이 매출 증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카드 매출은 경기 시작 3시간 전 기준 평균 14만 6394원, 경기 종료 3시간 후 18만 376원을 기록했다. 챔피언스필드 흠행기가 있을 때 막걸리(43.4%), 국물라면(33.8%), 곤일주스(24.7%) 등의 매출 증가율이 커졌다.

이번 보고서는 KCD가 올해 10월 기준 캐시노트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한 사업장의 예산금융합회, 흠향스 연동 데이터를 활용해 작성했다. 분석 대상에는 2024년 3월~2025년 10월 사이 각 지역의 야구 경기장을 중심으로 반경 1.5km 이내 위치한 6000여개 외식업 사 업장이 포함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22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 전남의 갯벌(1070.8㎢)이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 신안 화도 앞 갯벌.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갯벌은 거대한 탄소감축원…하루 평균 528t 이산화탄소 흡수

전남보건환경연구원, 탄소 농도 측정…하루 554만원 경제적 효과

전남 갯벌이 하루에 승용차 5만 5000대 분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갯벌이 거대한 탄소감축원이라는 의미다.

22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보환경)에 따르면 갯벌 1㎢에서 시간당 9㎎/㎡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과는 신안 지도 비(非)식생 갯벌 탄소감축원 인증을 위한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보환경은 네 차례에 걸쳐 전국 최초로 비식생 갯벌의 탄소 농도를 72시간 연속 측정했다.

이번 연구는 전남의 갯벌 면적이 1070.8㎢인 것

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528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이 수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따른 한국배출권 가격(1t당 1만 500원)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 554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의미한다.

이번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비식생 갯벌의 '불루카본' 인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 결과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게 보환경 설명이다.

국제사회가 식생 갯벌만을 탄소 감축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비식생 갯벌의 탄소 흡수를 규

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향후 전국 최대 면적을 보유한 전남 갯벌이 탄소감축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사업 결과를 10월 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 발표했다. 한국대기환경학회 12월호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전남은 비식생 갯벌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미생물의 광합성과 관련있는 일상화 측정 등을 통해 신뢰성 높은 자료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얼굴 붉어지면 술 마시지 마세요"

연말연시 잊은 술자리 '원샷' 금물…만성질환 치료 중이면 금주해야

술자리가 잊은 연말연시를 맞아 전문가들은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만성질환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되도록 금주해야 한다고 권했다.

22일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하루에 소주 1병에 담긴 순수 알코올 50g을 섭취하면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구강암, 식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과 같은 암 발생 위험이 2~3배 높다.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아세트알데히드는 1급 발암 물질이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023년 폐렴 국민건강영양 조사 기반의 음주 심층보고서를 보면 5명 중 2명

은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는 '알코올 흥조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조증이 있는 사람 중 10%는 고위험 음주를 했다. 고위험 음주는 주 2회 이상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 7잔 이상, 여성 5잔인 경우를 말한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어지럼증을 느끼는 알코올 흥조증은 알코올 분비효소 부족에 생기는 증상이다.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이 지속해서 술을 마시면 식도암이나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질환 치료약 복용자의 2명 중 1명은 한 달 1회 이상 음주를 하고 있었고, 복용자 중 남자

20%·여자 10% 정도는 고위험 음주를 했다.

질병관리청은 "만성질환 치료약을 복용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면 치료약물과 알코올이 상호 작용을 하게 돼 치료약의 효과가 없어지거나 부작용이 부른다"며 치료 효과를 유지하려면 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폭탄주를 마실 때 술을 한꺼번에 마시는 '원샷'을 하는 경우가 45.7%로 폭탄주를 마시거나 원샷으로 술을 빨리 마시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빠르게 증가해 급성 알코올증독을 일으킬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월간음주율은 지난해 광주 54.4%·전남 47.4%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광주 49.8%·전남 45.4%)보다 올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옥중서 또 '5·18 북한군 개입설'…지만원 고발

광주시·5·18기념재단 공동…스카이데일리 통해 11차례 유포

5·18 민주화운동을 펼쳤던 죄로 실형을 살고 있는 지만원씨가 옥중에서도 또다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포착돼 광주시와 5·18 단체가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는 22일 5·18기념재단과 공동으로 지만원씨와 조정진 전 스카이데일리 대표, 그리고 해당 인터넷 신문사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대법원에서 소위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

그러나 지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12일까지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를 통해 '지만원의 다큐소설 전두환'이라는 연재물을 11차례나 게재했다

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법원이 이미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한 내용을 교묘하게 반복하며 역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고발된 조 전 대표와 스카이데일리 측은 지씨에게 지면을 내주고,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기획 기사와 칼럼을 지속적으로 내보낸 혐의다.

최기영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수차례에 걸쳐 위법하다고 확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재유포한 행위는 명백하고 고의였다"며 "여러적 진실을 훼드는 허위 주장의 재생산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은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는 '알코올 흥조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조증이 있는 사람 중 10%는 고위험 음주를 했다.

고위험 음주는 주 2회 이상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 7잔 이상, 여성 5잔인 경우를 말한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어지럼증을 느끼는 알코올 흥조증은 알코올 분비효소 부족에 생기는 증상이다.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이 지속해서 술을 마시면 식도암이나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질환 치료약 복용자의 2명 중 1명은 한 달 1회 이상 음주를 하고 있었고, 복용자 중 남자

은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는 '알코올 흥조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조증이 있는 사람 중 10%는 고위험 음주를 했다.

고위험 음주는 주 2회 이상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 7잔 이상, 여성 5잔인 경우를 말한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어지럼증을 느끼는 알코올 흥조증은 알코올 분비효소 부족에 생기는 증상이다.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이 지속해서 술을 마시면 식도암이나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질환 치료약 복용자의 2명 중 1명은 한 달 1회 이상 음주를 하고 있었고, 복용자 중 남자

은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는 '알코올 흥조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조증이 있는 사람 중 10%는 고위험 음주를 했다.

고위험 음주는 주 2회 이상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 7잔 이상, 여성 5잔인 경우를 말한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어지럼증을 느끼는 알코올 흥조증은 알코올 분비효소 부족에 생기는 증상이다.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이 지속해서 술을 마시면 식도암이나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질환 치료약 복용자의 2명 중 1명은 한 달 1회 이상 음주를 하고 있었고, 복용자 중 남자

은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는 '알코올 흥조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조증이 있는 사람 중 10%는 고위험 음주를 했다.

고위험 음주는 주 2회 이상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 7잔 이상, 여성 5잔인 경우를 말한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어지럼증을 느끼는 알코올 흥조증은 알코올 분비효소 부족에 생기는 증상이다.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이 지속해서 술을 마시면 식도암이나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질환 치료약 복용자의 2명 중 1명은 한 달 1회 이상 음주를 하고 있었고, 복용자 중 남자

은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는 '알코올 흥조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조증이 있는 사람 중 10%는 고위험 음주를 했다.

고위험 음주는 주 2회 이상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 7잔 이상, 여성 5잔인 경우를 말한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어지럼증을 느끼는 알코올 흥조증은 알코올 분비효소 부족에 생기는 증상이다.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이 지속해서 술을 마시면 식도암이나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질환 치료약 복용자의 2명 중 1명은 한 달 1회 이상 음주를 하고 있었고, 복용자 중 남자

은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는 '알코올 흥조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조증이 있는 사람 중 10%는 고위험 음주를 했다.

고위험 음주는 주 2회 이상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 7잔 이상, 여성 5잔인 경우를 말한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어지럼증을 느끼는 알코올 흥조증은 알코올 분비효소 부족에 생기는 증상이다.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이 지속해서 술을 마시면 식도암이나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질환 치료약 복용자의 2명 중 1명은 한 달 1회 이상 음주를 하고 있었고, 복용자 중 남자

은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는 '알코올 흥조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